

15년내 국내 경마산업, 세계 5위로 이끈다

승마산업, 5대 말산업 선진국 지향
고품질 경마 등 4대 전략 세우고
소통·협력 등 12가지 실천과제 수립
정기환 마사회장 "K-경마 만들것"

한국마사회가 한국 경마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마사회는 19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진행된 한국경마 100년 기념식에서 'VISION 2037, 글로벌 TOP 5 말산업 선도기업'이라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새 비전은 미래의 주역인 MZ세대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담아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한국경마 100년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아 신입사원이 함께 발표했다.

한국경마는 1922년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어 5월20일 서울 동대문훈현원 광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올해로 시행 100년을 맞았다. 한국경마는 지난 100년간 대중 스포츠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경마시행 국가로 발돋움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5000여억 원의 국가재정 기여와 경주마 생산농가 소득(연간



19일 오후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한국경마 100년 기념식에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약 100억 원) 창출, 축산발전기금 출연(연간 약 1000억 원) 등 말산업 성장 재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마 중단과 말산업 존립 기반 붕괴 등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아 사회적으로 경마시행 권

한분산과 말 복지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 100년이 되는 올해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통해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한 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게 됐다.

새 비전인 'VISION 2037, 글로벌 TOP 5 말산업 선도기업'은 15년 이내에 국내 경마산업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승마산업을 5대 말산업 선진국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슬로건은 '말과 함께 한 100년, 다시 뛰는 한국마사회'로 정했다.

비전을 달성하는 4대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경마서비스 제공, KRA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반려마 시대 개막, 사회와 소통하는 ESG경영 추진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상생과 소통, 협력, 조직투명성, 동물 복지, 성장과 나눔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12가지 실천과제도 수립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100년 많은 한계에 도전해 세계무대에서 위상까지 달라졌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 국민 앞에 약속한 새로운 100년 비전 실천을 통해 국가와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경마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해 세계 속 자랑스러운 K-경마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부산경남 '위너스타' 코리안더비 깜짝 우승



위너스타

한국경마 100년을 기념해 열린 '제25회 코리안더비'(G I)에서 국산 3세 최강마 타이틀은 부산경남의 위너스타(수, 한국, 3세, 강훈표 마주, 백광열 조교사)에게 돌아갔다. 15일 일요일 서울경마공원 제8경주로 열린 코리안더비(G I)에서 위너스타는 승부사, 캡틴양기, 컴플리트벨류 등 막강한 경주마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코리안더비'(G I)는 국산 3세마 중 최고를 선발하는 '삼관마' 시리즈의 두 번째 레이스로 총 상금 8억 원이 걸렸다. 2위는 승부사, 3위는 캡틴양기가 차지했고 기대를 모았던 컴플리트벨류는 6위에 그쳤다. 한편, 이날 서울경마공원에는 2만8000여 명의 나들이객들이 찾았고 한국마사회는 초청가수 공연과 마칭밴드 퍼레이드, 쿼츠 이벤트, 푸드트럭, 북고놀이 플레이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우철 김양선, 팬 선정 '다시 보고싶은 조교사'



신우철

김양선

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 100년을 기념해 경마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시 보고 싶은 조교사' 투표에서 신우철 전 조교사와 김양선 전 조교사가 선정됐다. 신우철 전 조교사는 1147표를 기록하며 한국경마 최초로 1000표를 달성했다. 김양선 전 조교사는 통산 906표를 거두었고 그랑프리 2연패의 동반의강자와 불패기상 등 한국경마사에 남는 명마를 배출했다. 두 조교사들은 22일 서울 경마공원을 방문해 시상식과 추첨행사를 통해 경마팬을 만난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어마어마' 출전 보류... 라이벌 '라운더파이터' 우승 도전

22일 서울경마공원에서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두 번째 레이스 '제30회 서울마주협회장배'(G III, 1200m, 3세 이상, 총 상금 4.5억 원) 대상 경주가 제8경주로 열린다.

서울과 부경을 통합한 최고의 스프린터 경주마를 선발하는 '스프린터 시리즈'는 '부산일보배'(G III), '서울마주협회장배', 'SBS스포츠 스프린트'(G III)로 이루어졌다. 첫 경주 '부산일보배'에서는 어마어마가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어마어마가 출전을 보류하면서 뜻밖의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히트예감(부산, 수, 한국, 4세, 레이팅100, 승률 75.0% 복승률 100%)

지난해 경주마 일생에 단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삼관경주(트리플 크라운)'에서 두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준우승을 기록했다. 단거



라운더파이터

리 주행능력도 뛰어나다. 2세 때 1200m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원 특별경주를 우승했고, 직전경주였던 2월에도 1200m에 6개월 만에 출전해 2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출전한 12번의 모든 경주에서 1위 내지는 2위를 기록한 전전후 경주마다.

●라운더파이터(서울, 수, 한국(포), 4세, 승률 90.9% 복승률 100%)

데뷔 이후 무려 10연승을 기록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4월 첫 원정무대였던 '부산일

보배'에서 어마어마에게 첫 패배를 맞은 후 4주 만의 출전이다. 특히 이번 경주에는 라이벌 어마어마가 빠져 우승을 노릴 민하다.

●심장의고동(서울, 수, 한국, 6세, 승률 40.0% 복승률 44.0%)

오랜만에 단거리 경주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대통령배'(G I) 우승 이후 최근 2000m를 연속 우승하며 장거리 강자로 입지를 굳혔기에 단거리 출전은 뜻밖이다. 2020년 1월 1200m인 세계일보배(L) 대상경주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부산일보배'와 'SBS스포츠 스프린트'에서는 각각 6위와 11위의 머물러 단거리 경주에서 기록이 다소 편차가 있다.

●장산클리어(서울, 거, 미국, 4세, 승률 62.5% 복승률 87.5%)

통산 출전 8회로 출전마 중 가장 페이스

경험이 적다. 그러나 모두 1200m에 출전해 다섯 번의 우승을 기록했고 3위 아래로 떨어진 경주가 없다. 직전경주 역시 먼로기수와 호흡을 맞춰 4마신차 승리를 거두며 1등급으로 승급했다. 이번이 승급 데뷔전이다.

●딕시어게인(서울, 거, 한국, 6세, 레이팅 99, 승률 47.1% 복승률 58.8%)

지난 부산일보배 원정 출전에서 어마어마, 라운더파이터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당시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해 경주 초반 후미에 자리잡아 불안했지만 결승선 300m를 앞두고 추임력을 폭발시키며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당시 딕시어게인의 마지막 200m 기록은 12.3초로 어마어마와 같은 기록이며 출전마중 가장 빠르다. 최근 부담중량이 늘어났지만 기록경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재범 기자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일양 MSM 프리미엄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화주시면 30정 1통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계단만 보면 뛰어 올라 가고 싶다...
관절/연골

MSM이란?
MSM은 연골, 인대, 연결 조직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 받은 소재입니다.

이런분들이 신청하세요

- 무릎, 관절이 불편하신분
-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분
- 계단을 오르내릴때 무릎이 불편하신분
- 노화로 관절건강에 이상이 있으신분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분
- 과체중으로 관절건강에 유의해야하는분

30정 1통 무료



용량 : 500mg×30정
※택배비 3,000원 본인부담(우체국택배)

MSM 30정 1통을 무료로 드립니다. ☎ **1661-0985**

(주) 현대생활건강